



# WEST,

## 또 하나의 꿈을 향해

|2016 WEST 프로그램 수기집|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WEST,

또 하나의 꿈을 향해

[2016 WEST 프로그램 수기집]

# Work English Study Travel

## WEST, 또 하나의 꿈을 향해

| 2016 WEST 프로그램 수기집 |

### 제6회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공모전 수상작

- 우수상 | 이현주\_ WEST, 그 대장정의 끝에서 ..... 08  
장려상 | 서형주\_ WEST 이야기 ..... 15  
장려상 | 안수지\_ 내 인생의 100 점짜리 강의 : WEST ..... 23

- ▲ 대학생 글로벌 사진부문 공모전 수상작 ..... 30  
우수상 | 김주현      장려상 | 정윤희

### WEST 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수상작

- 최우수상 | 김슬우\_ 플랫폼 전문가 꿈꾸던 토종 국내 대학생,  
실리콘밸리를 거쳐 Google 에 입사하다! ..... 34  
우수상 | 이현석\_ WEST 프로그램과 디지털 마케터 ..... 42

Work  
English Study  
Travel



---

2016년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공모전 수상작

---

우 수 상



## WEST, 그 대장정의 끝에서

이 현 주

단국대학교 / 경제학과

2015년 2월, 눈보라가 치는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3년 안에 다시 오자.’ 라고 다짐했던 내가 1년도 채 안된 약 5개월 만에 미국으로 다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WEST 였다. 졸업을 1 학기 앞둔 상태였지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막막한 상태였고, WEST 지원서에도 부끄럽지만 ‘나를 찾아가는 기회로 삼겠다.’ 고도 적었다. 그렇게 시작된 미국생활은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1년 하고도 2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약 2개월 가량 남은 기간에 대한 아쉬움과 보람찼던 경험, 잊지 못할 여행에 대한 그리움 등의 마음이 교차한다. 앞으로 남은 길보다 지나온 길들이 더 많은 시점에서 내가 직접 부딪혀보고 느낀 ‘진짜’ 미국 생활과 경험들을 공유하고자 이 체험 수기를 쓰게 되었다.

### ‘Work : ‘Real America’를 경험하다.

나는 경제와 행정이라는 조금은 독특한 조합의 복수전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직무 쪽으로 일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할 수 있는 것’ 과 ‘할 수 없는 것’ 을 나누고, ‘하고 싶은 것’ 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내린 결론에 가장 부합하는 곳은 USDA(U.S. Department of Agriculture)이었다. 그 이후로 꾸준히 스폰서 회사인 Cultural Vistas 에도 가고 싶은 곳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인터뷰 기회를 위해서 여러 정보를 찾아 수집했다. 결과적으로 두 번의 인터뷰 모두 USDA 와 이루어졌고, 마침내 Omaha 의 USDA, FSIS(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산하의 FSAB(Federal State Audit Branch)에서 일하게 되었다.



Omaha, 내가 일하고 있는 지역을 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가 어디야?” 혹은 “어느 주에 있는 도시야?” 라고 다시 한 번 되묻곤 한다. 나 또한 그랬다. 워싱턴 DC의 USDA 인터뷰에서 떨어진 후, 다시 한 번 찾아온 USDA의 잡오퍼 메일에서 기쁘기 보다는 지역을 보고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대부분의 많은 참가자들이 DC, 뉴욕, 시카고 같은 대도시에서 일할 기회를 얻는 걸 보고 “무슨 경험을 하고 오지?” 부터 “하필 왜 나일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 부터 들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순수 100%의 미국을 경험하고, ‘나’ 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독특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게 행운인 것 같다.

USDA 는 미국 내 국방부 다음으로 큰 부로서 DC 에 본부를 두고 미국 전역에 여러 에이전시 및 오피스들을 두고 있다. 동시에 WEST 프로그램과는 10년 넘게 인턴이 파견된 곳만큼 인연이 깊은 곳이기도 하다. 그 중 우리 팀은 중앙 정부와 주를 연결 짓는 감사팀으로, 매년 27개 주의 검역 프로그램과 미국산 소 고기가 수·출입되는 한국, 캐나다, 일본 등의 국제 검역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미국 전역의 리콜 및 식품안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들에 대한 업무를 처리한다. 여기서 내 역할은 매년 바뀌는 데이터베이스 자료들을 업데이트 하고, 각종 크고 작은 미팅들의 자료를 만드는 등의 일을 한다. DC의 HR 팀이나 다른 부서들과는 달리 WEST 프로그램으로서 첫 인턴이었기 때문에 나도, 팀원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었다. 1년 가까이 같이 일하면서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는 팀원들로 인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언제나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문화에 대한 관심을 아끼지 않고 표현하며, 부족한 내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감사하다. 언젠가 어학연수 기간 중

간담회가 있었는데, 지난 기수 웨스티 분께서 일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일의 질이 중요하다고 했던 기억이 난다. 인턴십을 시작한 이후, 슈퍼바이저인 Ron 과 Kris 의 지도 하에 때로는 독립적으로, 때로는 팀원들과 함께 프로젝트 개념으로 일을 했는데, 매 프로젝트를 거듭할수록 자료의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난이도가 어려워져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때로는 일이 폭풍처럼 몰아쳐서 많기도 하고, 때로는 이 폭풍이 지나간 뒤처럼 일이 없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먼저 일을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자기계발 시간처럼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일과 관련해서 내가 몰랐던 점이나 더 깊게 알고 싶었던 것에 대해 공부하도록 주어진 시간이라 생각하고 관련 문서나 기사들을 찾아보곤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매번 다음 프로젝트를 하면서 큰 도움이 되었다.

업무 환경을 빼놓고 넘어갈 수 없는데 외국 회사들은 자유로운 분위기라더라, 업무시간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더라 등 업무 환경에 대해 많이들 묻곤 한다.

이에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유롭다.’ 이다. 무엇보다 재택근무와 근무시간선택제가 정말 잘 발달되어 있다. 나같은 경우에도 여러 옵션들 중 하루에 10시간을 근무하고 매주 특정 요일에 쉬는 옵션을 선택해서 주4일제를 유지중인데 이로 인해 여행의 폭이 넓어지고, 매주 하루 더 긴 주말을 누릴 수 있었다. 처음 인턴십을 시작했을 때 청바지와 후드티 차림에 점심도시락을 먹으면서 회의를 하고, 흔히 말하는 ‘칼퇴’ 가 자유로우며 계급은 있으나 수평적인 문화가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문화에서 최적의 능률이 나오지 않는게 이상할 정도였다. 일 외적으로도 계절에 따라 퇴근 후에 같이 스포츠를 즐기고, 분기별로 있는 기부 행사와 봉사활동, 정원에서 수확한 야채와 과일들을 나눠먹는 등의 모습들도 내게는 신선한 문화 중 하나였다.



### ‘English Study; 아는 것이 힘!

어학연수 기간 중 스폰서 회사와 1:1 미팅을 가지는데, 가고싶은 회사나 분야 등 스폰서 회사 담당자들과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다. 나는 이 미팅에서 내 부족한 영어 실력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우려를 받았고, 그 우려를 극복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아직까지도 내 영어 실력은 한참 부족하지만, 최소한 그 미팅 때의 실력보다는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DC 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어학연수를 시작하기 전 반배치고사와 같은 레벨 테스트를 통해 반을 배정받게 된다. 매달 치러지는 시험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반으로 옮길 수도 있다. 웨스티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규 수업 이후에 비즈니스 클래스가 따로 있다. 내 경우에는 이 비즈니스 클래스가 인턴 생활을 하면서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회사 내에서도 이메일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고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전화, 이메일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화, 이메일 등 실질적으로 인턴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유용했다.

어학연수 당시에 WEST 페이스북을 통해서 DC 의 조지타운대의 한국어 강의를 듣는 외국인 친구인 Emma 와 언어교환을 했는데, 이 기회는 영어실력의 향상 기회를 넘어 소중한 친구를 얻는 기회도 되었다. 나보다 1살 많은 대학원생이었는데 한국어 수준이 이미 원어민 수준이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래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만날 때마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얘기했던 것 같다. 동시에 영어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덜었던 것 같다. 또한 Emma 도 아시아권 인턴십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일에 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만날 때마다 서로 응원을 하기도 했다. 지금 나는 미국에, 그 친





구는 홍콩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카이프로 연락할 수 밖에 없지만 내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에서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내가 있는 곳에는 Meet up 이나 언어교환이 흔치 않지만 대도시에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영어 실력도 향상시키면서 좋은 친구도 사귄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마하에서 살기 좋은 한 가지는 회사 길 건너에 바로 공립도서관이 있는 것이었다. DC 에서는 아무래도 거리가 있어서 잘 안가게 되었는데, 회사 바로 앞에 있으니 퇴근하고 잠깐 들러 책을 읽거나 빌리는게 용이했다. 더욱이 요즘에는 공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E-book 서비스도 제공하기 때문에 여행가기 전이나 공휴일 같은 날에는 E-book 으로 책을 빌려서 읽곤 했다. 모르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아 읽는데 꽤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한 권씩 완독하고 모르는 단어들 적어놓은 리스트를 보면 그보다 뿌듯할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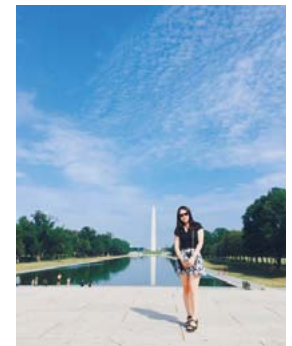
업무환경과 생활환경은 영어 실력 향상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무슨 일든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례해 결과가 나오는게 당연한데, 아무래도 영어를 보다 많이 듣고 쓸 수 밖에 없는 환경은 영어실력을 늘리는데 가장 좋은 환경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봤을 때, 동양인을 찾아보기 힘든 곳에서 살고 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로울 수도 있지만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다. 룸메이트도 모두 미국인이고, 회사 내에도, 길거리에도 동양인을 찾아보기 힘든 오마하는 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미국인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영어실력도 물론이지만 그들의 문화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계기도 되었다.



## Travel ;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 디딤돌

WEST 의 약자 'T' 가 의미하는 것처럼 WEST 프로그램의 큰 장점 중 하나가 여행이다. 미국에 오래 머물면서 책이나 인터넷으로만 접했던 곳들을 직접 눈에 담을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흔히 우리가 '미국' 하면 떠올리는 곳, 뉴욕의 타임스퀘어, 시카고의 시카고 리버를 따라 늘어진 빌딩숲, 마이애미의 야자수가 가득한 해변, 보스턴의 하버드, MIT 와 같은 명문대 캠퍼스들, 이 풍경들을 직접 마주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큰 감동을 선사한다.

내게 여행은 활력소이면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같은 존재이다. 작년 겨울, 홀로 떠난 뉴욕 여행에서의 다짐이 현재 미국 생활의 시작을 만들었던 것처럼 지난 여행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이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데 또 다른 디딤돌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나는 지난 어학연수와 인턴생활 중 틈틈히 캐나다를 포함한 11 개의 도시를 여행했다. 같은 대도시일지라도 도시마다 가지는 특유의 분위기를 느끼고,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대자연을 눈 앞에서 마주하는 것은 신선한 추억들로 남았다.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면서 느꼈던 설렘과



여행하면서 마주한 많은 사람들과 풍경들, 여행 후에도 한동안 가지지 않는 여운들은 미국 생활의 잠깐동안이 아니라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을 20 대의 추억으로 자리할 것 같다.

글을 끝맺으면서 전하고 싶은 것은 흔히 우리가 미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환상은 말그대로 환상일 뿐이다. 물론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자연과 사진으로만 보았던 여러 명소들이 주는 감동과 새로움도 있지만 대도시가 아닌 소도시에서 살면서 일한 지난 1년 가까이 생활에서 마주한 미국의 현실은 내 생각과는 많이 다른 곳이었고, 이 경험은 환상에서 벗어나 나를 좀 더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WEST, 긴 대장정의 끝자락에서 감사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많지만 그 중 하나는 같은 기수로 DC 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동기들이다. 지금은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긴 미국 생활에서 힘들 때나 기쁠 때 제일 먼저 위로와 축하를 해주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은 큰 행운이 아닐까 싶다. 만약 누군가 내게 WEST 프로그램에 대해 묻는다면, 내 커리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소중한 사람들과 잊지 못할 여행 등 충분히 경험할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원하라고 답하고 싶다.

## 장려상



# WEST 이야기

서형주

서울대학교 / 경영학과

## I. 글로벌 인턴십을 준비하며

### 1. 지원동기 및 절차

수년을 땅속에서 지내다 올라와 나무에서 한철을 올라 가는 매미는 여름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압니다. 전역 후 첫 학기 초에 어느 모임 자리에서 그 매미가 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간의 소식이 오가는 와중에, 한 친구가 WEST 라는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해외 인턴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어는 수능을 위해 공부한 게 전부였고 외국은 여행 장소로만 생각해왔던 제게, 그 친구의 미국 인턴십 이야기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제프 베조스와 하워드 슈츠에 감동받으며 막연히 그려왔던 글로벌 기업에 대한 모습은 해외 인턴십이라는 목표로 구체화 되었습니다.

제가 WEST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글로벌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글로벌 감각은 개인의 생존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도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특히 WEST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미국은 국제 정치와 경제의 방향을 주도하는 국가이며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혼재하기에, 글로벌 감각을 체득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해외 인턴십입니다. 인턴십은 단순히 해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일을 ‘하는’ 보다 실천적인 경험입니다. 영어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고, 해외 경험은 교환학생이나 여행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WEST 가 제공하는 인턴십은 실제 미국 기업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무엇보다 현지 기업 구성원의 생각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WEST 참가자 선발에 반영되는 요소로는 자기소개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등의 공인 영어 성적, 평균 평점 등이 있습니다. 공인 영어 시험에서 최상위의 결과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해외 인턴으로서의 역량을 증명하게 위해선 상위 등급의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방학을 이용해 이 부분에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WEST가 세계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WEST 프로그램을 통해 제 자신의 발전과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서류 통과 이후 이어진 두 차례의 인터뷰에서는 WEST에 대한 간절함과 자신감을 표현하려 노력했습니다.

## 2. 구직과정 및 성공 노하우

미국 시카고에서 어학연수 3개월 차가 지날 무렵, 정부에서 선정한 스폰서를 통해 뉴욕의 벤처 자본과 테크 환경의 중심에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먼저 샘플 이력서를 여럿 살핀 후에 제 경험과 관련된 표현을 받았습니다. 세련되고 강한 동사를 사용했고, 읽는 사람이 편안하도록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제거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WEST 프로그램 내에서 지원되는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원 회사와 포지션에 맞게 이력서를 수정하는 작업도 계속되었습니다.

인터뷰 대비는 회사 및 산업을 공부하는 데에서 시작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서 회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발견한 CEO의 웹 세미나 영상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당 회사가 스타트업이라면 CrunchBase와 Angellist가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포지션이나 전임자를 살펴보는 데에는 LinkedIn이 유용합니다.

회사가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열정이라고 생각했고, 자세를 바로잡고 동작을 크게 하려는 목적으로 일어난 채 스카이프 인터뷰를 치렀습니다. 나중에 인터뷰어의 입장에서 인턴십 지원자를 인터뷰 할 때 깨달은 사실이지만, 관련 경험과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한 점수로 연결됩니다. 무엇보다 회사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게 중요한데, 지원자로부터 질문이 없을 경우 저희 회사 직원들은 그를 과감히 탈락시켰습니다.

## II. 글로벌 인턴십 활동을 하면서

### 1. 회사 소개

6개월 동안 Venture Capital Analyst로서 근무했던 VentureOut은 전세계의 실력 있는 테크 스타트업을 미국의 자본 및 시장에 연결시키는 '엑셀러레이터<sup>1</sup>'입니다. 엑셀러레이터의 서비스는 투자자와 법률 및 회계 전문가와의 미팅, 시장 진출 지원, 잠재 고객 및 파트너 추천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까지 VentureOut은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26여개국 600여 스타트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대표적인 프로그램 파트너로는 뉴욕 폴란드 영사관, 프랑스 영사관, 콜롬비아 정부, 독일 상공회의소 등이 있습니다.

### 2. 업무 소개

25주간의 인턴십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프로그램 매니저로서의 역할입니다. 담당했던 이스라엘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먼저 이스라엘 내 혹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벤처 캐피탈,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등을 조사하고 각 개체의 세부 정보를 탐색하여 기준에 따라 등급을 나눕니다. 이후 아웃소싱을 통해 기준을 통과한 벤처 캐피탈 등에 연락을 취하고 이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웹 세미나 및 세일즈 미팅에 참석하도록 유도합니다.

한편 디자인과 미디어 관리 업무도 담당했습니다. 인턴십 시작과 동시에 프로그램 제안서, 공식 자료, 발표 파워포인트, 보고 자료 등의 디자인을 최신화하는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이를 위해 CEO와 주기적으로 회의하며 수정을 거듭했고, 그 과정에서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와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에 맞추어 웹사이트와 Meetup, 페이스북, Eventbrite 등 소셜미디어에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고 세부 정보가 수정될 때 마다 업데이트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주간에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고 업데이트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장에서 사진과 비디오를 촬영하면서 뉴욕의 테크 환경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와 프랑스 프로그램 당시에는 각국 영사 초청으로 영사관을 방문하여 정부가 자국 창업가들을 어떻게 지원 하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Meetup으로 꼽히는 뉴욕 테크 Meetup

1. 인큐베이터 단계를 지나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갖춘 스타트업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상장회사로까지 도약하도록 돕는 집단



주뉴욕플란드영사관행사



뉴욕테크밋업

에 매달 참석해 미국 스타트업의 최신 기술 동향을 엿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인턴십이었고, 회사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회사에 가장 먼저 출근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자정에 CEO로부터 이메일이 오면 다음날 아침까지 업무를 끝마쳤습니다. 영어가 부족했기에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렸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이를 만회할 방법은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저녁과 주말에도 사무실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턴십 기간 동안 뉴욕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지만 그저 즐겁게 일했습니다.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간단한 사항이지만 정기 팀 미팅에서 항상 세 가지를 기록했습니다. 회사 업무 흐름을 파악하고자 각 의제를 노트북에 받아 적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업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실력을 보완하고자 팀원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기록해 익혔습니다. 또한 회사 특성상 자주 있는 네트워크 이벤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미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문화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팀원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 생일파티나 간단한 술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그들이 추천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서는 그들의 농담을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 3. 국가 소개

제가 보고 느낀 미국은 소비, 다양성, 노동 문화의 세가지로 요약됩니다. 소비의 국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미국인의 소비 행태는 한국인의 그것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가 일했던 회사 CEO를 보더라도 아마존을 통해 매주 최신 상품을 구입하고 외식과 여행으로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제가 룸메이트와 식료품을 쇼핑할 때면 그는 집에 가져가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양을 구입하곤 했습니다. 한편 가

장 빈곤한 사람들조차 주급을 금요일과 주말을 통해 모두 소비하고 월요일에 가게에 찾아가 외상을 요구하는 모습은 충격적이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저축의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면서 미국의 누구의 소비로 지탱되는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다양성입니다. 미국에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다양한 인종, 종교, 언어 및 문화가 혼재합니다. 특히 뉴욕에서는 피부색이 어떻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누구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전세계를 한 곳에 모아둔 듯한 뉴욕에서는 제가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양성이 다양하게 어울림을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거리의 사람들 무리를 보면 대개 같은 인종 및 국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한 집단 내에서 다양한 인종을 찾아볼 수 있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다양성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 문화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려는 경향은 유럽을 거쳐 미국에도 이미 정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일한 경험이 있는 경영 컨설턴트는 미국에서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업무 강도가 약하며, 상하 관계에 있어서 압박이 훨씬 적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인은 주말 및 휴가를 비롯한 가족과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는 사업 초기 노동을 집중해야 하는 스타트업에도 적용되는듯 했습니다. 수십의 스타트업이 공유하는 셰어 오피스 건물에 제 회사가 위치해 있었는데, 주말에 출근하는 인원은 전무할 정도였습니다.

### 4. 일상 및 에피소드

미국에서 저의 주거 형태는 주로 셰어 하우스였습니다. 개인 방을 소유하고 주방과 화장실을 공유했습니다.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은 한 명부터 다섯까지 다양했습니다. 미국 문화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소금이나 식기도 잘 나누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의 셰어 하우스에 머물 당시에는 음식 및 간식은 물론 화장지도 나누어 썼고, 저녁에는 함께 맥주도 곤잘 마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선호했던 것은 홈스테이였습니다. 미국 가족과 생활하면서 언어와 문화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특히 홈스테이 가족과 뉴저지와 매릴랜드 등지로 차 타고 여행했던 것은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프레도는 첫 룸메이트여서인지 제 미국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 또 함께 많은 추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멕시코계 미국인인 그는 요리사였는데, 몸에 흉터가 여럿 있을 만큼 거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순수하고 넉넉해 제 식비 걱정을 덜어주려고 일부러 많은 양의 식료품을 구입했고, 미국 음식을 자주 요리해줬습니다. 프레도를 통해 파티에 초대되어 하루 종일 그의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대낮에 호기로 독한 술을 잔뜩 들이켜 그날 해변에서 낮잠만 자긴 했지만 미국인과 어울렸던 최초의 파티였기에 마냥 즐겁고 신기했습니다. 또 제가 부족한 영어 실력에 자신감을 잃을 때면, 그는 거리에 나가 미국과 부딪히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했습니다.

뉴욕테크데이라는 이벤트에 저희 회사가 참가했습니다. 뉴욕테크데이는 뉴욕에서 가장 큰 테크 이벤트로 꼽히는데, 거대한 부지에 수백의 스타트업과 관련 기업이 부스를 만들어 비즈니스를 홍보하고 네트워킹하는 박람회입니다. 저희 회사도 부스를 마련해 회사와 프로그램을 홍보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관심을 보였습니다. 부족한 실력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질문에 답하고 명함을 나누어주며 회사를 소개하는 과정 자체가 보람 있었습니다.



뉴욕테크데이 VentureOut 부스에서

### III. 글로벌 인턴십을 다녀와서

#### 1.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의 제 1요소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턴십을 시작했기 때문에 초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업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의 문화를 습득하고 직원들과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도 언어는 시간과 노력을 가장 많이 투자해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태도 또한 언어 능력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재차 되묻고,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배우려 하며, 개인적인 시간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서라도 업무를 끝마치는 자세는 인턴십을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하여, 인턴에 대한 보수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얼마간의 자금을 마련해 가는 것도 여유로운 해외 생활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 2. 글로벌 인턴십으로 인한 깨달음과 변화

글로벌 인턴십은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큰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방의 소도시에서 나고 자란 저는 서울에 처음 도착해 그 규모와 속도에 압도당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인구 오천만의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시장이었습니다. 전세계의 자본과 벤처기업이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영어는 이미 장애물이 아니었고, 미국은 훌륭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벤처기업이라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흡수합니다. 국경 밖에서는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인재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네트워킹은 미국사회 비즈니스의 일상적인 부분이지만, 저에게는 낯설고 또 부담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 건너온 인턴에게 누가 관심을 가질까 지레 겁을 먹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까지 와서 미국인과 소통할 기회를 놓치지 싫었습니다. 무작정 사람들에게 다가가 한국에서 온 인턴임을 밝히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상과는 달리 모두 저에게 관심을 보였고, 비즈니스와 문화, 개인적인 이야기 등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영어가 완벽치 않다고 혹은 인턴이라고 위축될 필요도 없고, 인턴이라고 무시해서도 안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이 미국 및 유럽 국민과 비교했을 때 개인의 여가보다 조직의 성과를 우선시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통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저 또한 이런 문화의 영



향을 받아왔기 때문인지 자발적인 초과 근무가 잦았습니다. 그제 일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이 개인에게 집중되면 처리가 늦어지고 실수가 잦아지며, 결국 해당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을 피로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조직의 입장에서도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제 동료들은 제 “접시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올려놓지 말라” 고 조언하곤 했습니다.

### 3. 글로벌인턴십 기관과 참가자분들께

글로벌인턴십 경험은 해외 경험이 전무했던 제게 훌륭한 자산이며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비용이 만만치 않으며, 개선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참가했던 WEST 프로그램에서는 인턴십이 개인 희망과 차이가 있는 포지션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턴십 지원과 선발 과정이 좀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금이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지는 못했습니다. 지원금이 증액된다면 참가자들이 보다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글로벌인턴십을 친구와 후배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물 안에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저에게 글로벌 인턴십은 넓은 마음으로 세상과 대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낯선 환경은 저의 장점보다는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고 속상했던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 11개월 간의 미국은 어려움과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는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고,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 장려상



# 내 인생의 100 점짜리 강의 : WEST

안수지

연세대학교 / 경제학과

## [내 인생의 100 점짜리 강의 : WEST]

WEST 프로그램에 지원한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번 다녀오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 한국에서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기에 지원하기 전에 망설여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지원하기 전부터 합격한 후까지도 불안감으로 많이 고민하고 걱정했습니다. 시간과 돈,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는 프로그램인데, 혹시 실패하고 돌아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격하고 나서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같은 고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실 것이기에 이렇게 체험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었다면 절대 배우지 못할 많은 것들을 배웠고, 이곳에서의 경험이 제 가치관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느꼈던 불안감이 다 허망할 정도로 저는 이곳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느낀 점들을 중심으로 후배 참가자분들 에게 저의 지난 날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체험수기가 후배 참가자분들 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욕심 하나로

저는 지원할 당시 4학년 2학기 학부생이었습니다. 제 주변 모두가 취업 준비를 하느라 바쁜 시기였습니다. 저 또한 취업 준비를 하느라 겨울 방학 때부터 인적성 공부와 토익 공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WEST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고, 거짓말처럼 그때부터 ‘나도 가고 싶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외 거주 경험이 한 번도 없었는데, 교환학생을 다녀온 친구들이 해

의 거주를 매우 추천했기에 마음 한구석으로 항상 부러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면접을 보러 가는 날까지 부모님께 지원했다는 말조차 드리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제가 저번 학기에 취업하시기를 바라셨고, 저도 한편으로는 취업하지 못한 채 나아만 먹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살다 온 선배들과 친구들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격려를 해 주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서류 전형에 합격했던 기업의 인적성 시험이 있는 날, 저는 과감하게 시험을 보러 가지 않았고, 그 날 저녁 WEST 면접 대비 스터디를 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욕심 하나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칫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 취업준비를 포기했던 선택이 이젠 가장 잘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 반절로 줄어버린 시작과 두 배로 늘게 된 노력

처음부터 모든 일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1년짜리 중기 프로그램에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6개월 단기 프로그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서류 제출 날짜를 착각하여 중기 서류 접수 마감일이 지난 후 제출하러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도 가고 싶어 했는데, 모든 게 물거품이 되나 싶어 한동안 학교 국제처 앞에서 제출하지 못한 서류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 다행히도 단기와 중기의 마감일이 달랐고, 저는 계획을 바꿔 단기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합격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우울했습니다. 중기로 가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국 땅을 처음 밟던 날, 스스로와 약속했습니다. 하루를 48시간처럼 살자고, 1년에서 6개월로 기간이 줄었으니,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하루하루를 2배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이 저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단 하루도



▲ 알렉산드리아 불꽃 축제 사진



▲ 뉴욕 meet up 사진

허투루 쓴 날이 없었고, 매일이 소중한기에 더 감사했습니다. 한국을 그리워할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한국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서인지 다른 친구들과 달리 향수병도 전혀 겪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현지에 적응하는 요령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한국이 그리워질 때면 한국은 어차피 다시 돌아갈 곳이고,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라는 점을 상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컴퓨터 메인 포탈도 naver에서 google 영어 버전으로 바꾸는 등 사소한 것부터 바꿔 나갔습니다. 한국 친구들의 페이스북 소식을 자주 보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봉사활동, 파티, meet up, 축제, 여행 등 저는 미국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하려 노력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여기 오고 나서 느꼈던 가장 큰 깨달음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의 첫 번째, Manner makes man. : 배려가 행복을 만든다.

‘Manner makes man.’이라는 대사는 콜린 퍼스가 킹스맨이라는 영화에서 하면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매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죠. 저는 이를 조금 바꿔 ‘배려가 행복을 만든다.’라는 속담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도덕 교과서에 나올 것만 같은 따분한 이 말이 저에게 가슴 깊이 다가오게 된 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도 한국에 가서 꼭 저렇게 해야지.’라는 다짐을 하곤 하는데, 그러한 배려가 한국에서도 점점 퍼진다면 좀 더 따뜻한 일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왔을 때 저에게 사소하면서도 중요했던 문화충격은 다른 사람의 앞을 가로막거나 살짝 밀치게 되었을 때는 항상 ‘I’m sorry.’라고 사과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게 형식적인 인사일 뿐이더라도, 인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던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저는 24년을 서울에서 살았고, 지하철역이나 길거리에서 항상 다른 사람들과 부딪혔습니다. 일상적인 일이기에 그냥 넘어갈 때가 더 많았지만, 가끔 세계 부딪힐 때는 짜증도 나고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고 나서는 그런 일로 불편한 감정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서울보다 인구 밀도가 높은 뉴욕에 오고 나서도요. 한 마디의 짧은 말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 충격을 받았던 것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DC에서 버스에 탔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정거장에서 내리고 계셨습니다. 노인이었지만



별다른 불편함이 없는 일반적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분께서 할아버지를 위해 버스 계단을 경사 모드로 바꿔주셨습니다. 사실 경사 모드로 바꾸게 되면 시간도 지체되고, 설사 바꾸지 않았더라도 할아버지께서 잘 내리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뉴욕에 오고 나서는 임신부에 대한 배려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아저씨께서 임신부가 타자 큰 소리로 ‘Is there anybody who can stand for the pregnant woman?’ 이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당시 퇴근 시간 대라 지하철 안이 꽉 차있었고, 아마 사람들이 그 임신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 임신부와 아는 사이가 아니었는데도, 아저씨께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신 물어보셨고,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에 있던 네 명이 동시에 일어나 ‘sorry’ 라고 사과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뉴욕에서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임신부석과 노약자석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끄럽지만 저는 원래 특별 좌석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한 때 1 시간 30 분짜리 통학을 했었고, 빈 좌석으로 남아있는 노약자석과 임신부석을 원망스러워했습니다. 앉아 있다가 사람이 오면 비켜주면 되지 않느냐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오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옆의 아저씨가 당당하게 임신부를 위해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해줄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에 누구도 반감이 있지 않고 비켜줄 수 있을 때, 그런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고가 확산되었을 때 자율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가면 제가 먼저 뉴욕 지하철의 아저씨처럼, 디씨의 버스 기사처럼 행동하고, 그러한 문화를 널리 퍼트리려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이 정말 다 사소한 일들인데,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매일 모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깨닫는 중입니다. 작지만 자주 느끼던 부정적인 감정들을 더는 느끼게 되지 않았고, 부정적인 감정의 제거는 삶의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미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Manner makes man’ 은 그저 영화 대사로만 평생 남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 강의 두 번째, 최종 목적은 반드시 높은 가치를 지녀야 한다.

제가 소속된 경제학과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점’ 을 찾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 최적점에 비해 비용을 더 많이 들이거

나 덜 들이면 그 것은 비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저는 정말 ‘경제학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회가 80을 요구하면 더도 덜도 말고 딱 80까지만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90을 노력하면 더 얻는 것은 있겠지만, 추가적인 효과에 비해 들이는 노력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는 바로 언어와 정치에 관한 공부입니다.

저는 외교에서 프랑스어를 3년 동안 공부했지만, 인사를 제외하곤 단 한마디도 할 줄 모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불어를 딱히 쓸 곳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영어를 연습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 역시 간단합니다. 영어를 잘하면 취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치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인적성 시사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이번 해 처음으로 신문의 정치면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최종 목적은 입시 아니면 취업이었고, 정말 딱 그만큼을 위해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전 영어와 정치를 아직도 잘 모릅니다. 노력을 별로 들이지 않아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했으니 거의 평생을 공부한 셈인데, 외국인이라 기본 대화조차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가려면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취업할 땐 적당한 토익 점수와 시사상식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낮은 가치의 목표만을 가지고 살아왔고, 실질적으로 사는 데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언어 배우는 것이 취미라며 곧 러시아어를 배우겠다던 친구, 굳이 술자리에서 정치 얘기를 하는 친구는 모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에 오고 나서 불편함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자각했습니다. 저는 외향적이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밋업쟁이’ 였을 정도로 매주 여러 meet up 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친해지는 데도 오래 걸렸습니다. 전 DC에서 어학연수를 시작한 첫 주부터 meet up에 나갔는데, 도착한지 얼마 안 된 절 걱정하고 챙겨주는 사람들이 너무 좋고 감사했습니다. 더 친해지고 싶고 고맙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말이 ‘Thanks’ 밖에 없었습니다. 더 깊은 대화를 하고 싶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영어공부를 했

습니다. 어학원에서 가장 먼저 손을 들어 발표했고, 집에서는 자기 전에 꼭 영어 동영상 시청하고 잤습니다. 대화 연습을 하고 싶어 장을 보러 가면 직원에게 어느 요거트가 가장 맛있느냐며 말을 걸었습니다. 평생을 공부해도 늘지 않던 영어가 순식간에 늘었습니다. 미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난 후 어학원에서 시험을 쳤고, 가장 높은 수준의 반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고,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기자마자 영어에 대한 저의 모든 태도와 노력이 달라졌습니다. 정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힐러리와 트럼프가 대결을 벌이고 있는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모든 미국인들이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카페에 갔다가 정치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대화에 끼지 못한 채 우두커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치 이야기를 하길래 불편했습니다. 심지어 들은 지지하는 후보도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대학생들이 대선에 관해, 자신들이 살 나라의 미래에 관해 토론하는 모습이 멋졌습니다. 저런 생각이 깊은 청년들 덕분에 미래가 밝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진작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후회가 들었고, 저도 우리나라의 정책과 미래에 관해 토론할 줄 아는 멋진 청년이 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밀린 신문을 쌓아두다가 결국 읽지도 않고 버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 날은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새벽 2 시까지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 스스로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아왔고, 이에 자부심까지 느껴왔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는 합리성이라는 이름 아래 목표가 될 수 없는 것들을 목표로 세워두고, 작은 나만의 우물에 갇힌 개구리였던 것 같습니다. 수단에 있어야 할 것을 목표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목표를 이뤄도 딱히 발전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종 목표는 반드시 좀 더 높은 가치를 지녀야만 하고, 그래야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은 효율적으로 사는 것보다 멋지게 살아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 맺음말

제가 이 프로그램에 처음 기대했던 것은 당연히 영어 실력의 상승과 좋은 인턴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다 현재 만족할 만큼 얻는 중입니다. 미국에 오기 전보다 눈에 띄게 영어가 향상되었고,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시는 보스 아

래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9월부터 Stratton management 라는 회사에서 marketing analyst 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주로 한 일은 Daily, Monthly 매출 분석과 간단한 회계 업무였고, 그 밖의 새로운 업무를 배우나가는 시기였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제가 젊어서 더 잘 알 것이라 하시면서 SNS marketing 업무를 통째로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의 가능성을 항상 크게 봐주시는 보스 덕분에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정직원처럼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일을 시작 한지 한 달 남짓 되어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는 않지만, 저를 한 층 더 성장시켜줄 경험이라는 것만은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 말고도 뜻밖에 얻게 된,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가치관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저는 너무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이는 제가 한국에서만 계속 살았더라면 절대 몰랐을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가시적인 결과로 드러나지 않겠지만, 이런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것과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것은 나중에 있어서 지혜를 필요로 할 때 큰 차이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WEST 프로그램은 마치 저에게 100 점 짜리 인생 강의 같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남은 절반의 생활이 기대됩니다. 3개월 후의 저는 더 발전한 사람일 것이라는 믿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들은 저의 시각을 바탕으로 저의 경험과 어우러지며 깨달은 것들입니다. WEST 에 참가하는 모든 분들은 현재 각자의 스토리를 지니고 각자의 강의를 듣는 중일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강의이든지 간에 분명히 명강의 중의 명강의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후배 참가자분들께서도 본인만의 멋진 명강의를 듣고 가시길 바라며, 벌써 WEST 생활이 반절이나 지났다는 것에 아쉬움을 담아 글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러한 강의를 선물해주신 부모님과 국립 국제교육원에 감사의 인사를 표합니다.



Washington Monument 앞에서 웨스티들과 ▶  
저에게 소중한 추억을 안겨준 웨스티들, 이제는 뽀뽀이  
홀어져 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보는 길로!

## [ 2016년 사진부문 공모전 수상작 ]

우 수 상

김 주 현 (광운대학교 / 정보제어공학과)



###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올해 Aeroprobe는 새롭게 웹사이트를 단장하며, 웹사이트에 올라갈 비디오를 촬영했다. 인턴을 시작한지 이제 막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회사 사람들은 회사에 젊고, 새로운 이미지가 필요하다고며 비디오 모델로 나를 모두 추천했다. 처음에는 수줍었지만, 회사 홍보 비디오 모델이 되는 것은 WEST프로그램 참가자 중 유일무이한 경험이 될 것 같아 나의 순수하고 맑고 자신 있는 모습을 한껏 뽐내고, 두근두근 불 나의 포트폴리오이자, 미국에서의 추억을 얻었다.

Work  
English Study  
Travel

## [ 2016년 사진부문 공모전 수상작 ]

장 려 상

정 윤 희 (성균관대학교 / 신문방송학과)



### 생동감 넘치는 촬영 현장!

비디오 제작 회사에서 인턴을 하면서 촬영 현장의 업무를 도울 기회를 가졌다. 이 날은 뉴욕 스테이튼 아일랜드 지역 학생들의 약물 복용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공익광고 제작에 참여하였다. 완성된 영상으로 볼 때는 지나쳤던 한 장면 한 장면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배웠다. 현장에 찾아온 배우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호흡을 맞추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이 진행되었다. 편집 후 최종 영상에서 엔딩 크레딧에 내 이름이 함께 올라가는 것을 보며 내가 기여했다는 것에 큰 뿌듯함을 느꼈다.

Work  
English Study  
Travel

Work  
English Study  
Travel



---

2016년 WEST  
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수상작

---



## 최우수상



## 플랫폼 전문가 꿈꾸던 토종 국내 대학생, 실리콘밸리를 거쳐 Google 에 입사하다!

김슬우

연세대학교 / 경영학과

“어떻게 문과학생이 Google 에 입사를 했어요?”

“실리콘밸리를 거쳐 Google 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죠?”

“Google 은 어떤 사람을 뽑나요? 어떻게 면접을 보셨어요?”



Google Korea, GFC Office 리셉션



Google India, Hyderabad Office 리셉션

위의 질문들은 내가 Google Korea 마케팅솔루션 본부에 입사한 후 주변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고 실제로 지금도 새로 보는 사람들은 종종 같은 사항들을 물어보곤 한다. 나는 저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괜히 부끄러워서, “그저 타이밍과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라고 짧게 대답하곤 하는데, 사실은 이곳에 오기까지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몇 번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일은 WEST를 통해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모바일

데이터 분석 벤처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다. 막상 그 시기에는 많은 마음고생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과정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는 오지 못했을 거라는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금 낮간지러울 수 있는 이야기임에도 오늘 이런 지면을 빌려 WEST 후배분든 혹은 WEST 를 고려하고 있는 대학생분들에게 내 이야기를 전달해보고자 한다.

### IT 기기를 좋아하던 아이, 모바일 벤처회사를 창업하고 실리콘밸리로 떠나다

“슬우야 넌 컴퓨터를 참 잘 다루는 것 같아”

“넌 왜 이렇게 기기에 관심이 많아?”

내가 중학교 시기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던 말이었다. 누군가 내게 인생에서 가장 놀랐던 경험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컴퓨터실에서 처음 도스 컴퓨터를 다뤄봤을 때라고. 그래서일까? 나는 가장 바빠 때였던 고등학교 3학년 시기까지도 취미로 웹 언어인 HTML과 포토샵을 배워 내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곤 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취미가 내 미래진로 고민과 곧장 연결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내가 선택하던 학과는 이미 중학교 이래로 법학과였으니까 말이다. 다만, 내가 대학에 진학하던 시기에 확정되지 않았던 로스쿨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나는 결론적으로 경영학과로 진학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이어 시작되었던 꿈에 그리던 대학교 생활. 그러나 성공적인 대학진학이 끝이라고 믿고 싶었던 것과는 다르게 실제 대학생들의 모습은 내가 상상하던 것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 취업전쟁. 1학년 때부터 너도나도 학점 챙기기부터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던 모습은 나에겐 신선한 충격이었다.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다. 내가 과연 다시 시작된 경쟁체제 속에서 다시 한번 잘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시작된 레이스 속에서 고민이 많아지던 시기,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을 앞둔 시점이었다. 우연한 기회에 유학생 친구들과 모바일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할 기회가 있었고 약 1년 간 열심히 달릴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만두긴 했지만 그때의 경험에서 느낀 것은, 앞으로 내가 만약 비즈니스 세계에 몸담는다면 ‘글로벌 플랫폼’이라는 키워드와 ‘확장성’은 가져가야겠다는 다짐. 그러나 막상 다시 학교로 복학하고 보니, 이러한 다짐과는 별개로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에 열을 올릴 수 밖에 없는 환경들이 펼쳐졌다. 종종 “기회만 된다면 해외경험



을 통해 좀 더 먼 미래를 준비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외국 경험도 없고 토종 국내 대학생이었던 나에게 그러한 도전은 먼 일처럼만 느껴졌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4학년이 되고 취업 준비를 하는 시기가 되었다. 마음속의 짐과 같았던 생각들은 그대로였지만 더욱 여유가 없어지고 있었고 불안해 지던 시기였다. 그 때 우연하게 보게 된 WEST 14 기 모집 메일. 딱딱한 일상 속에서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기분을 느꼈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될 것 같다는 강한 확신 속에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오랜만에 집을 찾아갔다. 취업은 안하고 갑자기 외국에 인턴으로 간다는 얘기를 부모님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오히려 나의 이러한 도전을 응원해주셨고, 그렇게 27 살 늦은 나이에 나의 도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시작되었다고 해서 준비 없이 시작한 도전은 아니었다. WEST 프로그램을 떠나기 전, 마음속 목표는 IT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었다. 평소 내가 IT 분야에 관심도가 높았던 점도 있지만, 2011 년 모바일 비즈니스 사업을 하며 느꼈던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현재 모바일 플랫폼의 성장성이 높고 IT 산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성장이 단순히 온라인시장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고도화되어 오프라인 플랫폼들로의 전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생각하는 바가 맞다면,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 나의 능력을 그 중심에서 시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이러한 생각들을 발휘하기 위해 나는 WEST 프로그램의 지역과 시기도 신중하게 고려하였다. 가장 가고 싶었던 지역은 전세계 IT 산업의 중심지이자 Google 을 비롯한 IT 거인들의 본사가 위치한 실리콘밸리. 우연인지 WEST 프로그램 대상 지역 중 샌프란시스코가 실리콘밸리와 인접한 지역이었다. 내가 만약 샌프란시스코로 연수를 가게 된다면, 원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것은 물론이고 그 문화를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더 나아가, 추후 글로벌 IT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벤처회사 경험이 분명 도움이 될 거라는 계산도 있었다. 그렇게 미국 땅 한번 밟아본 적 없었던 토종 한국인의 1년6개월 미국 원정기가 시작이 되었다.

미국생활 시작부터, 실리콘밸리 인턴 그리고 스탠포드대학교 수강생이 되기까지



San Francisco 근교의 Berkely University 교정



San Francisco 시내 전경

부푼 꿈을 안고 떠났지만, 원정은 시작부터 고생길이었다. 안정적으로 머무를 집을 구하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자신있었던 영어 의사소통까지 어느 것 하나도 쉬운 일이 없었다. 특히 언어는 충격적이기까지 했는데, 나름 유창한 수준의 영어를 구사한다고 자부했었지만 현지에서 들리는 영어는 다르게 느껴졌다. 말이 빨랐고, 들어본 적 없는 다양한 억양이 일상이었다. 한국 교육에서 배운 표준 억양의 느린 속도로 반복되는 영어와는 차원이 달랐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현지 어학원을 다니며 2~3 개월이 지날 즈음부터 해결되었다. 빠른 속도와 다양한 억양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적응기간이 없었다면, 회사에 인턴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었을거라는 생각이 든었다.

집과 언어 문제가 해결될 즈음 나는 미국에 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여 정보를 모으기 시작하였다. 우선, 내가 꿈의 직장으로 선망하는 Google 과 Facebook 본사를 방문해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단순히 방문을 넘어 해당 회사의 본사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다양한 정보도 교류하고 그 문화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다. 아마 이 시기 즈음하여 내가 LinkedIn 을 검색하여 보낸 메시지와 이메일만 하더라도 최소 50 통은 넘었을 것이다. 남들이 보기엔 말

도 안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만큼 필사적이고 간절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이러한 내 열정을 알아봐 준 것인지, 다행히 일부 사람들로부터 답장이 오기 시작했다. 아침 8시 출근 전에 간단히 커피챗을 하자는 제안부터, 회사에 방문한다면 방문증을 끊어주겠다는 엄청난 제안까지! 첫 메일을 답장 받았을 때는 얼마나 좋았는지 아무도 없는 좁은 방에서 소리 지르고 발을 동동구르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만났던 인연들이 실제 내가 Google 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는 루트가 될 수 있었다.



Google 본사 야외 쉼터



Google 본사 방문 시 받았던 방문증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동기부여가 되긴 했지만, 더 많은 정보를 접할수록 막막한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국내에서는 유명 대학을 나왔지만 해외에서는 자신있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 있는 지역 CC 를 졸업한 사람들보다 언어도, 네트워크도, 정보도 모두 부족했다. 과연 이런 내가 Google 이나 Facebook 과 같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을까? 라는 회의감이 계속적으로 들기도 하였다. 그 시기, 나는 appbackr 라는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모바일 데이터 분석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였는데, 소규모 벤처회사였음에도 구성원 모두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다. 특히 같은 팀에 대한 배려와 애정이 넘치는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나의 이런 고민들을 알게 된 중국계 미국인인 부사장님은 자신의 다양한 친구들을 소개시켜주기까지 했다.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던 그 분을 통해 나는 감사하게도 스탠포드대학교 수업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Entrepreneurship 관련 된 스탠포드 여름학기에 등록하게 된다. 미국 땅도 한번 밟아본 적 없던 한국 토



Stanford University, Entrepreneurship 수업



Stanford Business School 건물

종 대학생이 WEST 프로그램의 기회를 살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인턴과 꿈의 대학이라는 스탠포드대학교 학생이 되어보는 경험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 다양한 여행 경험과 갑자기 시작된 Google 인터뷰, 그리고 최종 합격까지.

WEST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경험이 무엇인지를 물어본다면, 정말 많은 대답들이 머리속에 떠오른다. IT 중심지 실리콘밸리에서 벤처회사 일원으로 일해본 경험,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라는 스탠포드대학교 수강생이 되어본 경험 등.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바로 여행이었다. 빠듯한 대학생활 속에서 동남아를 제외하고 해외 여행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었던 나에게 미국생활은 신세계였다. 특히 굉장했던 appbackr 동료들과 매주 주말마다 떠나던 Road Trip 은 앞으로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너무 빠르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던 와중에 기회는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내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고 있고, IT 회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대학선배가 마침 자기 팀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이름을 들었을 때 나는 놀랄 수 밖엔 없었다. 바로 Google 이었기 때문이다.

평소 알고 지내긴 했지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몰랐던 그 분을 통해 인터뷰 제안을 받았을 때 나는 정말 어떨떨할 수 밖엔 없었다. 물론 내가 목표하던 Google 본사 자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해외 대학을 나오지 않고 비자 문제가





갑자기 결성되어 떠난 Las Vegas Road Trip



잊을 수 없는 Yosemite National Park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에 바로 자리를 얻는 것이 엔지니어를 제외하고 거의 불가능하던 것을 알고 있던 시점이기에 위치는 중요하지 않았다. Google 에서 일하는 분들을 통해 이미 Google 은 내부 이동이 자유로운 회사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도 주효했다. 따라서 Google Korea 에서 일을 시작하더라도 얼마든지 나의 능력 여부에 따라 해외 혹은 본사에서 일할 기회는 얻을 수가 있었다. 절대 거절할 상황도 아니었고, 오히려 내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싶었던 기회였다.

나는 준비해왔던 Resume 를 바로 전달했고, 2 주는 예상하라고 했던 리뷰 과정이 생략되고, 바로 4일 뒤 첫 인터뷰가 시작이 되었다. 상대는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채용 담당자. 전화로 진행되는 전화인터뷰라 더욱 떨렸다. 싱가포르 영어는 억양이 특이하다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쩌나 같은 사소한 고민부터 인터뷰 준비까지 어느 것 하나 완벽하다고 자신할만한 것이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인터뷰. 너무 떨렸지만 막상 인터뷰가 시작되고 그 시간 동안은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얘기를 쏟아내었던 것 같다. WEST 라는 생소하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 한국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의 대학교를 나온 학생이 스탠포드대학교 수업을 수강했던 점 등은 채용담당자에게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다. 인터뷰 초반부터 약 10 분 이상을 그 얘기만 주고받았으니 말이다.

그렇게 진행된 인터뷰 이후, 연락이 오지 않은 일주일여 넘는 시간 동안은 별 생각을 다했던 것 같다. 떨어진 건 아닐까? 그때 그렇게 대답한게 잘못된 걸까?

등등.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합격 통보가 날라왔고, 2 차 인터뷰는 언제가 좋은 메일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추가로 3차 면접 그리고 Country Manager 와 진행된 최종 면접까지 3 주라는 시간 동안 모든 채용과정이 종료가 되었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다.

오히려 이 시간에는 담담했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마치 Google 이라는 회사에서 인터뷰를 보는 것이 내가 WEST 프로그램 참가 결정을 했던 시기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물 흐르듯 지나갔고 이 자리에 와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령 떨어지더라도 이 경험은 앞으로 나의 여정에 있어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지나간 1 주일 후, 나는 최종적으로 Google 로부터 입사 제안을 받을 수 있었다. 합격이었다. 남들은 취업할 시기인 27 살에 불안한 마음으로 미국땅을 밟았고, 인턴으로 갖은 고생을 다했던 한국 토종 대학생이 마침내 Googler 가 되는 시점이었다. 그렇게 나는 29 살 첫 직장을 가졌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이 되었다.

우수상



## WEST 프로그램과 디지털 마케터

이 현 석

단국대학교 / 영어영문학과

### WEST프로그램과 디지털 마케터

안녕하세요. WEST 12기 인트락스 모범 장학생 이현석입니다. WEST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서 디지털 마케터 경력을 시작 할 수 있었고 현재 세계 최대의 미디어투자관리 기업인 GroupM Korea에서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WEST 프로그램 참여자로 글로벌 무대에서 도전하며 성장하고 진로 방향을 구체화 시킬 수 있었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WEST 어학 연수 중 길거리 인터뷰에 응한 모습(도전 정신)

### 정말로 간절했던 WEST 프로그램

영문과 4학년에 재학 중일 때 우연히 교육부 WEST 프로그램 공고를 접하였습니다. 가보고 싶던 미국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어학연수와 인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또한 취업 준비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글로벌 무대로 나가 실무 경험을 쌓으며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학점을 듣고 있었지만 WEST 합격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서류에 합격 하였습니다. 서류가 합격 한 후 영문과, 경영학과, 취업과 교수님 세 분을 찾아가서 실전 면접을 부탁드렸고 정말로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연습하고 또 연습하였습니다. 노력한 결과, 2차 인성 면접과 3차 전화 영어 면접까지 통과해서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 생애 첫 해외 거주, 첫 선택은 홈스테이

WEST 프로그램 특성상 처음 5달 동안 어학연수 및 현지 생활 적응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동안 조금 비싸더라도 홈스테이를 하며 현지 문화 적응력을 키우고 어학 실력을 쌓기로 부모님과 상의 후 결정하였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정말로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홈스테이 주인분은 필리핀계 아저씨였는데 공항 픽업뿐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명소를 드라이브 시켜주시고 영어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같이 홈스테이 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인트락스 학생이었으므로 학원도 같이 가고 공부도 같이 하고 방과 후 문화 체험도 같이 하였습니다. 홈스테이에 같은 국가 학생은 살 수 없는 인트락스 규정 덕분에 영어로만 대화해서 이때 영어 실력이 정말 눈부시게 향상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들과 함께

## 마케터로서 실무 경험 쌓기

WEST 프로그램은 기수마다 스폰서마다 인턴십을 구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트락스 12기 때는 인트락스 인턴십 페이지에 올라오는 공개 구직글을 보고 지원자가 관심있으면 Resume와 Cover Letter를 보내고 Host Company가 원할 시 면접을 보고 통과하면 일하게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인트락스 마케팅 강사와 함께

스스로 지원하고 싶은 회사를 찾아야 하고 다른 WEST 동료들과 관심이 같을 경우 불가피하게 경쟁을 해야 하는 제도였습니다. 어학연수 시절부터 많은 과제와 프리젠테이션 때문에 동료들이 기피하던 마케팅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따면서 꾸준히 마케팅 분야에 대해 리서치를 하였습니다. 결국,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회사에 최종 합격하며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 쉽지 않은 미국 인턴 적응

어학연수와 달리 미국 인턴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첫째, 미국인 사장님과 미국인 매니저의 영어 속도가 너무 빨라서 리스닝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학원에서 선생님들께서 해주던 또박또박하고 느린 속도의 영어가 아닌 실전 영어, 그것도 전문 용어가 사용되는 '비즈니스 영어' 였던 것 입니다. 둘째,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에 현장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력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점심 먹고 수업이 끝난 어학원과는 다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하는 체력과 집중력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투른 영어 능력으로 사장님께 많이 혼나기도 했지만 '성실함' (일찍아서 다른 직원들보다 늦게 퇴근하였습니다.), '꼼꼼함'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보고서 업데이트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사장님과 매니저가 준 문제 상황들에 대해 리서치를 통해 다각도로 분석해서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을 바탕으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한 결과 천천히 영어 리스닝,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 대한 이해, 체력과 집중력이 향상 되었습니다.

## WEST의 보물, 다양한 문화체험

어학연수와 인턴생활 외에 문화 체험, 친구들과 함께 한 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기억에 남는 경험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국생활에 지쳐갈 때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만든 스카이 다이빙,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인 구글과 페이스북 방문, 혼자 '소살리토'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느낀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 미국 큰 축제 중 하나인 '할로윈'날 스파이더맨 의상을 입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은 경험, 소중한 WEST 친구들과 함께 간 야구장과 함께 간 미국 여행.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험과 관련된 7장의 사진입니다.



WEST 다양한 문화체험



## 업무 전문성의 핵심, 자격증



Google Adwords 자격증 취득

면접관을 설득하려면 구체적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자료 중 하나가 자격증을 따는 것입니다. 미국 온라인 마케팅 회사에서 11개월 일하면서 총 3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Google Adwords’ 라는 온라인 마케팅 자격

증으로 구글에서 제시하는 300페이지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에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퇴근 후와 주말에 틈틈이 공부한 결과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합격한 후에 사장님과 매니저들의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자격증을 통해 그만큼 Adwords라는 온라인 마케팅 도구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PPC라고 불리는 온라인 광고 노출 전략에 대한 업무가 주어지기 시작 한 것입니다. 자격증은 많으면 많을 수록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전공, 하고 싶은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이면 더욱 더 좋다.) 예를 들어, 혹자는 “MOS자격증이 누구나 가지고 있어서 경쟁력이 없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MOS 자격증은 해외에서 인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컴퓨터 활용 능력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서류 합격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WEST 프로그램의 도전을 권하며

이 글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WEST 프로그램 도전을 권하고 싶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순히 영어 능력 향상뿐 아니라 타지에서 생활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 친구의 소중함 등 자신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 중 하나인 취업과 진로 문제를 실제 인턴 경험을 통해서 탐색 할 수 있습니다. 대학시절 영어 면접이 두려웠고 ‘대기업 마케터’라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던 한 청년은 이제 자신있게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으며 외국계 광고회사에서 자신이 하고 싶던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하는 역경에 대처하면서 얻은 다양한 경험들이 자신감, 긍정

의 힘을 가지게 해준 것입니다. ‘불합격’과 ‘실패’라는 단어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과 ‘열정’을 가지고 끊임 없이 노력하세요.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

## WEST, 또 하나의 꿈을 향해

| 2016 WEST 프로그램 수기집 |

---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인** 김 광 호

**발행처** 국립국제교육원

**주 소** 1355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문 의** 02) 3668-1300

**인쇄처** 한국장애인상생복지회

© 이 책을 무단 복사 및 복제, 전재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